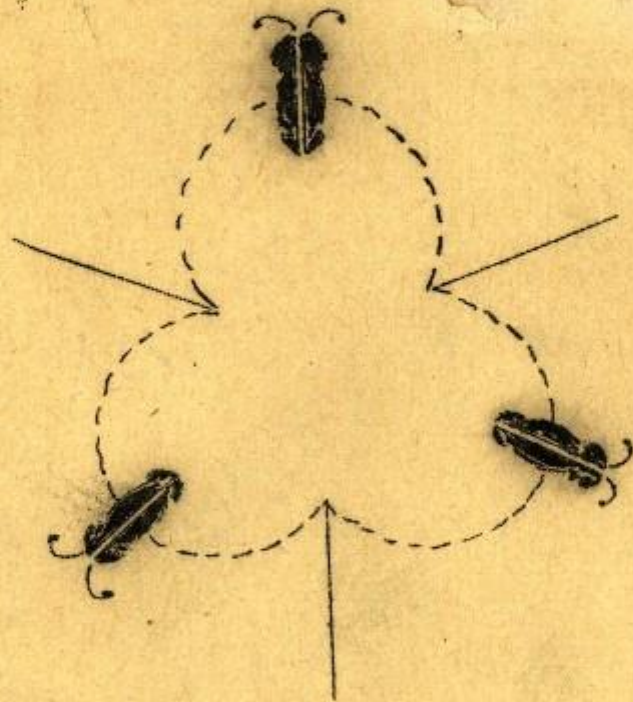


# 三 螢



4288

大韓速記高等技術学校  
第3面卒業生

三螢 目次

善願言

本校沿革

卒業生別 録註

溢校知新

一年き 国想基礎

速記士引 具備條件

어머나 把情에서

第三回生에게 寄せる 글

艾氏 崔庭宇

敬直 金震源

金鏡基 先生

張真振 先生

鄭源道 先生

柳 虎 菴

金 奎 顯

宋 宗 弘

宋 貞 浩

31 15 15 13 11 8 5 4 2 1

田校志 惜別軒見

詩 追憶

있지 못할 卒業生

雙 隨

詩 外心

원망이 없어

隨單 召興令城은 반고

詩 追憶

隨單 田故寫

設 同

五 題

隨單 白목담이 卍사

詩 別離

詩 먼먼길은

공은 未克成運記士

表贈履一贊

卒業生名錄

大齊運記高亭校術肆校同志會又則

會長名錄

(正會員)

編前後記

外心補

全	李	朴	洪	趙	卒	林	李	徐	金	鄭	白	李	登	金
範	武	躡	宗	誌	業	信	秀	原	陌	興	廷	榮	俊	百
成	仁	順	昌	象	生	相	讓	基	義	甲	依	廷	德	坤

卷頭言

흔들결이 기가간 일년이였읍니다 어질고 착하신 스승님들과 자

미있고 다정하던 벗들과 더불어 지낸 일년은

이제 만났다가는 헤어져야 할 운명의 갈곳인 철축을 벗어날림없이

안성마춤이 이남박을쓰고 섭섭한마음 가슴이 허술한계 우리들은

헤어져야 합니다. **三鵬**의 권독면을 쓰려나 자꾸만 지난날의 맺인정

이 아가운생각 간절합니다. 우리들은 한능불 찬실한아래서 서로 이

해하고 사귀하면서 엉겨진 유달은 벗들이였읍니다 지성으로 헤쳐

주시던 스승님들이며 친절하게 보살피주시던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만날때 헤어질때 정답게 웃어주던 여러 벗들이 이별을 아치는 매

뜻한 심사에서 이 석별지 **三鵬**을 내게 덧엿다는것 참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원컨대 오늘에 이별을 아치는 이 섭정이 두고두고 벗지말어 불

별이 헤어진 뒤에라도 옛벗을 아끼고 염려하는 열의 시로써로

늘 고통함이 없기를 바라바치았읍니다 아바 **三鵬**은 내게되는 본

연의 뜻에 판경 여기배 앓는것이라고 믿읍니다 보조록 지옥부에

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이한권이 옛정이 그리워질때마다 자

주 펼쳐질날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하도 많은 말을 다 주려고

이만으로 **三鵬**의 권독면을 삼가 올림니다

習 育 部





에서活躍하게 되었다. 鎡續하여 陽間生은 三九六名外 應募者中에  
 서 七二名의 優秀한 學生을 選取하여 速記學校 速記術與者 任한  
 叔風있는 講師를 招聘하여 一般社會學을 教授하여 오는데 이르렀던  
 것이나 其間 速記學校를 得어 있어 許多한 難關에 逢着하여 이를 克服  
 하지 못한 많은 落伍學生의 輩出은 보게 된 것은 甚히 遺憾스러운 일  
 이다.

수필생에게

校長 崔 奭 亨

開는 바야흐로 萬物이 蘇生하는 陽春에 萬雪之別이 結實되어 우  
리 枝門을 나서는 卒業諸君의 前途가 洋洋하여 가리 際光이 되리라 바  
지 않는 바임니다 昔者를 希望의 馬代라 함은 努力의 精誠이 있었으면  
自己의 運命을 스스로 拓하여 枝門의 열쇠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니  
實로 諸君의 將來運命의 大部分은 諸君自身의 精誠인 人生의 設計  
와 그에 配當되는 實踐力에 있는 것임니다

첫째로 諸君에게 偉大한 것은 時尙의 所運함을 徹底히 自覺하여  
時尙을 把握하는 것이니 萬若 諸君이 自己의 生命은 無制限한 것이 아니  
고 自己의 生命은 自己가 莫論하지 못하는 道안에도 容假함이 政縮됨  
을 恒常 愈頭에 두면 諸君의 人生에 있어서의 目的은 十中八九 到達  
될 것임니다 勿論으로 努力을 繼續할 것이니 어떠한 目標을 세워 놓고  
不斷히 努力한다면 반드시 그 努力의 結果가 나타나고야 말 것임니다  
우리 韓國人은 環境의 不호성이나 其他 理由로 해서 政時日內에 큰 結果  
를 獲得하는 常인이 있으나 自己안건에 障礙가 있는 데도 駭々히 所期의  
目標을 向하여 前進한다면 到達한 目的의 大小는 있을 지언정 何如否  
그 努力의 結果는 나타나고야 말 것임니다 諸君의 앞길에는 희로음과 슬픔  
도 많을 것임니다 그러나 諸君이 諸君의 長점을 다하여 그 모이는 것을  
充服한다면 諸君은 스스로 應勞한 바가 있을 것이고 同時에 반드시 그 結果가  
있을 것이니 옛말에 盡人事而待天命이라 함은 이것을 말하는 것임니다 바라건대  
諸君은 以上의 말한 바 벗가지름을 守持하여 諸君이 習得한 바 技術을 信憑  
의 精誠을 다하여 發揮한다면 諸君의 將來에는 반드시 樂業外 幸福이 있을  
것을 確信하는 바임니다

溫故知新

敬臨 全 禮 殿

사람은 저 잘난맛에 산다고 말함이다. 죽어서 死境에 이르면  
 사람도 疾難을 해서 能食樂衣하는 사람을 보고는 自己의 境遇를 自  
 憐할것임이다. 工夫가 功보다 못하지 못한사람도 工夫를 망히 상은 사람  
 이 國家의 社稷을 조무는 腹論을 展南하며 是非를 行할때에 自己  
 의 工夫가 不足한것을 오기과 多후으로 생각할것임이다. 사람은  
 自己가 못한것을 認識할때처럼 悲慘한연은 없다고 생각함이다. 百  
 가지면 百가지가 보듯 보나다고 二길觀에는 自發의 道理에 없을  
 것임이다. 그러다고 저 잘난것만 비세워도 因緣한 일임이다. 저  
 반이 잘났다는것을 主張하기前에 必의 잘난것을 倉庫할줄 아서는  
 분이 賢이면서 賢을수복 그근은 賢光과 希望을 찾을수 있는곳임니  
 다. 나는 이것이 民主主義에의 入門이라고 생각함이다.

사람을 敬崇과 區別할수있은 度의 한가지는 술을 마실줄 안다는  
 것도 들며 있을것임이다. 술을 마실때는 次序를 밟아서  
 마시게 되기가 便經 술을맛이라고 생각함이다. 一면 처음에는 사  
 함이 술을 먹고 그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一면 나중에 술



이 사람을 먹고... 술을 마실 때에는 恒常 사람이 술을 마시  
 도록 努力을 해라 失수가 없을 것이고 더욱 發明한 것은 술을 멀리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이다  
 나의 中學時節에 漢文先生은 卒業에 臨하여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을 記憶하고 있습니다. 「술은! 자비 술을 마실 때에는 麥酒나 日本  
 술은 마시지 말고 麥酒라고 不得己 술을 마시게 되면 燒酒를 마시도록  
 하게」 二程子前의 아직도 가슴에 씌여져 있으며 이 漢文先生의  
 말씀을 「술을 마시지 經濟的으로 마시라」 하였으므로 餘講하고  
 있으며 그 당시 우리 社會의 經濟的形便을 測度하신 것으로도 爾解이  
 됩니다.

速記에 從事하는 분들은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데서 速記의 正確  
 과 迅速과 任 究履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  
 는 自身의 修養이 되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時節은 黃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速記學術은 元天 時節의  
 土台 위에서 構築된 것이므로 時節과는 不可不離의 學術입니다. 그러  
 므로 速記에 從事하는 사람도 時節에서 恒常 時節을 尊重하는 習  
 性을 具하여 할 것이며 時節을 勿率的으로 利用을 하여만 速記學術  
 과 그職業에 莫莫할 수 있을 것입니다. 「時節 有能한 速記人은 時節  
 을 嚴守하는 데서 벗어나 않습니다.  
 오늘 本校의 卒業生諸位는 勤學과 誠實과 努力의 應報로서 雲霄  
 의 功이 結實된 것을 마음 같이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의 修學의  
 期間은 비록 짧은 時節이었으나 그동안 여러분들은 速記工夫를 通



一年을 回想할 때

金 鎭 基 光 俊

세 번째 마지막하는 卒業期를 數日 앞두고 지나간 一年을 回想할 때  
 때 例年에 比해 後退하지 못할만한 多數의 志願者中에서 優秀한  
 學生을 選拔하게 된 入學當時의 歡喜와 期待가 一年이 되어 卒業期를  
 앞둔 오늘에 있어서는 空虛히 明白해서 多少 失望을 禁치 못하게  
 되었음은 甚히 遺憾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例그러나 하면 每해 卒  
 業期를 마치할 때마다 卒業生의 輩出率이 一級 他學科에 比해서 보다  
 大端히 他率임을 痛覺하게 되어 如何한 方法으로써 教授의 合理化를  
 期하여 좀더 多量의 優秀한 進修力者를 社會에 進出시켜 新學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나의 年例의 宿願였던 것이  
 다 그러나 例그러 長久한 才目은 아니었는지라도 三年이 되는 오  
 늘날에 있어서도 그解答를 보지 못하고 다시 宿願대로 남기게 되었  
 으니 失望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例그原因을 推察스려우나 例深奧하게 因考해본다면  
 勿論 例그原因이 甚 많은데에서 오는 例尙尙問題點과 多反亡年하고 復雜  
 微妙한 例우리 나라의 言語學上에서 오는 例進修法構成의 難處으로 因한  
 未滿點을 承認할 수 없으며 例王한 例進修學科가 아닌 것이 例學習過程에 대한  
 理解만으로서 例絶對로 不可能한 것이며 例進修學科를 理解하면서 例 莫

感할 수 있는 眞實에 必要하기 때문에 따라서 量보다 質을 求하는 漢  
 係로 一般 他學科에 比해서 보나 그輩出率에 있어 懸隔한 差異를 認  
 할 수 없다는 事實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사람은 짐이 있고  
 必하고 物件도 必경 그 뜻이 있거나 그生命의 價値를 發揮할 수 있  
 을 것이여는 範圍의 邊限은 定해져서 定해져서 定해져서 이리저리  
 彷徨하며 마듯한 符號를 變지 못하고 있는 이社會環境속에서 어차  
 定律적인 向上을 期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必의 宿願은 아마도  
 이 社會環境의 改善되어 우리에게도 집을 주고 앉을 자리를 주는 그  
 時에 가서야 비로서 그解答을 求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  
 번 第三回卒業를 當하며 더욱 痛切히 느껴지는 原因이 있어서 또한  
 失望의 淵을 不禁한다는 것이다  
 이 때 지난 三年간의 入學生數와 卒業數를 比較하면 第一回의  
 入學生 九四名에 對해서 卒業生이 三九% 第二回에 있어서 入學  
 生 六四名에 對해서 三六% 今般 第三回에 있어서는 大體 三五·六  
 卒業生數를 把握할 수는 없다 入學生 七二名에 對해서 大體 三五·六  
 %를 推定할 수 있는 것이다  
 本校가 創立되기 以前에 敎養을 受한 輩은 六·三五勤勞前에는  
 그輩出率이 最高 十% 内外였든 事實에 比하면 以上의 比1선례이치  
 는 私設養成所當時보다 相當한 高率임에 틀림없으나 歐美에 있어서  
 實業敎育을 받는 자이면 たい프라이더와 같은 速記라는 것이 常  
 識化되어 있는 今日에 있어서 우리나와 速記는 一般社會에 있어서 아직  
 도 白蠟蠟筆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速記文化를 火急히 普及

究屢시키기 爲해서 는 보다 多量의 優秀한 速記能力者를 이 社會에 進出  
시킬 것이 本校의 目的이며 발음바 使命임으로 宜은코도 이에 加一屬  
努力을 하고자 한다

끝으로 卒業生 諸位에게 一言하고저 하는 것은 本校에 入學하기 前에는  
速記에 對한 認識은 커녕 그 概念부터 稀薄하든 諸位가 이제 卒業을

하게 되었다고 速記의 完全習學者가 된듯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誤解임을 깨달아야 한다 諸位는 이제야 速記學이 무엇이며 速記

能力者란 어떠한 位置에 있다는 것을 知解한 程度에 이르른 것뿐이다  
速記學이 가지는 生命은 두말할 것없이 迅速性과 正確性에 있으니

무릇 正確性을 要하지 않는 學問은 眞實한 眞理만 오늘날 人類를 破滅의  
陷穽에 처지게 할지도 모른다 近代科學의 源泉인 數學에 及지 않게 速

記는 正確을 期해야 한다는 事實도 諸位는 體得하였을 것이다 速記

文學을 速記學의 肉體라고 하면 迅速性과 正確性은 速記學의 生命인  
것이므로 速記文學의 一翫이나 遺하거나 缺는 그 利那利那는 速記學

의 不滅의 魂인 것이다  
迅速 正確 忍耐 努力은 速記人의 信條임을 謹心하기 바란다  
諸位의 건강을 辨며

# 速記士의 具備條件

張 惠 根

끝없는 砂漠을 설어가는 隊商들의 발자취는 바위에 붙어 불려 떨어지고  
 까 모르며 한방울 한방울 떨어지는 露水는 巨岩이라도 떨어뜨리고  
 그의 발자취를 남긴다.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우리들의 生涯路은 狹로  
 砂漠의 樓閣이 아나뫼으며 벗들의 시달린 一竿도 杖杖지않아  
 제 날개 도천 재비가 되며 어찌짐을 떠나려할때 석별의 聲을보아  
 한층더 기꺼움과 한치의 노물이 앞선다. 空히 設는 너머리로서  
 말겨간 設問에 辭答을 주려할때 도르려 立는 사람의 頭腦를 먼저  
 뚫어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앞세우며 감히 別견 固執을 한치의  
 바늘로 그 針이를 재어볼까한다

가추자면 限이없고 안가추자면 못난이 가되는 것이 智能의面의 우리  
 들 삶  
 첫째로 손꼽아 보자니 넓고도 얇은 知識을 具備해 놓자는 것이야  
 하기에 넓고 깊게 볼에 지나면 그보다 난것이 없겠다만 限없는  
 넓이와 강물을 바가지로 퍼내는 裕이니 차라리 곧고루 얇이라도  
 퍼서 마셔 두자는 것이다

들쳐로 들어보면 主觀을 介入치 말고 敬穆하자는 것이다. 잘난 風  
聲과 自發하고 어색한 스켓치를 하느니보다 서두른 妙之與論라도 더  
어 있는 그대로 風聲을 적어내자

(보통한 主觀介入이란 無物이라는 觀念을 갖자)

셋치의 혀가 彌를 갖어온다는 말도 있거니와 셋치로 우리가 銘  
해아찰것은 손들이 주고 받고 한말 귀담아 듣고 머리에 생여 글  
로 엮었지만 손들이 앞서 임을 벌리지 말자. 발은 말이 4월  
간다는. 옛말은 우리말도고 眞은 듣것 같다. 천근의 무게 있는 임이  
들어보자

速記内容를 演說치 말도록하시라

먼길 떠나서 벼들에게 이리 일러두고 저리 일러주려다 도로혀  
지낸것도 못지니고 떠날까 겁내여 이모저모 뜰어서 앞에 세가지만  
늘어 놓겠대

여러 가지 마음

源道先生

우리가 速記同及列리의 秘說에서 가끔 이러한 말이 나온다. 鏡澈의 神經이 鏡澈의 速記를 善得後에 善소가 오니 바닷물은 圓이 있다. 狂의에 가가운 默感을 느끼는 것이다. 아니까 鏡澈이 狂의에 가가운 默感을 느끼는 때도 있다. 이 말은 우연히 나오는 말이 아니겠는 것은 여러 분이 完全한 速記士로서 그生活에 寸步도 내드리지 못하였는 바 저 만 佛窓 一汗의 體驗으로 當然한 말이 되고 是認할 것이다. 其의 면 이를 自然發生의 運命論에 맡기고 맡겨진 바 아니라면 여가에는 忍耐에 처한 努力이 及할 것이다. 善得을 善得하는 때 必短信條라고 하는 努力과 忍耐을 이面에서 말하자면 思考方式에 있어 再三 再四 熟考하는 힘을 기르는데 必要한 忍耐 消極的인 面을 버리고 視野를 넓히어 觀察하는 努力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마기도 子女를 많히 거느린 여건 어머니의 心情으로 도라 카주기 바라는 것이니 肉 또 말하기를 速記人들은 건강하게 보이는 飲食物의 카르리니로서 體勞動者가 勞力으로서 消耗된 精力을 飲食物의 카르리니로서 補充한 것은 것과 같이 精神勞動者는 日 많은 精神物 營養의 體及과 아울러 同量의 營養分이 必要한 것은 人同의 本能의 徵象인 것이니



너울거리는 아지랑이 山影라를 감도는 이룬봄, 여러분의 앞날을  
 祝福하는듯 하늘에서는 종달새 노려소리 드높으며 땅에서는 푸른뜻  
 뜻한 잔디풀이 여러분의 새希望인듯 엮어나오고있다  
 情熱과 努力의 翼展, 於焉 年輪을 더하여 스승과 벗들, 외  
 界 對스한 太陽을 등뒤로 받으며 校門을 나스는 여러분에게 언저  
 行煙이 있기를 빈다  
 始終一貫한 精誠과 努力, 첫되지않아 오늘의 盛典, 이것이야말로  
 뜻만이 받을수있는 報酬이라라 여난에 즈음하여 나는 社會에 巨  
 步를 내어드리는 여러분에게 時代思潮에 落伍되지 말고 理想의希望을  
 갖기를 附託하고싶다  
 自然은 다서금 짐은이에게 世로은 胎動의 氣運으로서 春光을 日  
 雨外같이 달복나리고있다 人間의 本體인 希望은 昔今을두고 變化  
 없이 人間의 意識안에 存続하고있지만 時代의 遞變과 辛苦艱難이  
 潮流에 부딪쳐 自己의 理想의希望을 喪고 悲觀의 虛窮앞에서 허터  
 기는 무리 많음을 否認할수없다 何休 우리는 絶對로 失望속에서  
 無爲徒食社여서는 안될것이며 짐은이와 亞권에서는 許多한 疲弱曲折이  
 當到함에 聲音의 訓練舞臺인 苦痛과 煩惱속에서 果敢히 自己의  
 理想의目的으로 慕進하며 最後의 아름다운말 仁聲에 오로지 精神의  
 最大의 價値가 存在할것이다

柳 虎 龍

乙未 三月

三 外

韓 奎 劄 記

한철어본 길에는 언제나 주안하였다. 어갈이 어디로 가는지 언제  
 길가에 무슨 危險은 없나하며 비스레소리만나도 주안하여 파음이  
 다 이주안을 이기고 오르는 길을 끝끝내 걷는대는 勇氣가 敢  
 이것을보면 전해듯곳에 첫거름을 드러놓은 두리 祖上님네는 큰 勇氣를  
 갖었거나 地聲에 물렸을것이라고 고개가 숙고라진다. 春風의 이르는  
 위를하면 遠記에 첫거름을 드러놓은 勇氣를 생각하게됩니다. 오르는  
 우리나라에 遠記라는 말이 생겨있다면 비록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그  
 것은 첫거름을 드러놓은 勇氣가 努力과 勇氣로서 이루어진것입니다.  
 張望泰先住 善義道先住 金天黃先住를 먼저 손잡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 先生헌들까 첫거름을 드러놓았으며 길을 다지고 넘힌 勇氣로서는  
 鄭源道 金鏡基 張惠根 柳若音 尹載秀 盧元鎬 楊佑鎭 韓奉永 尹炳德  
 李柱範 李東淳 諸兄이 있습니다.  
 내가 海邊式遊記土善成所 第二齋보으로 들머간것이다. 四十八年十二月四日  
 입니까 教室이렇게 있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못먹일 자경내고 해  
 름에는 번대에게 들보게됩니다. 내가 遠記를 배우기 시작하자 석달체  
 되는 四十八年一月二十三日에 教十年來 처음으로 큰 노이 왔습니다.  
 도고 가가세고 생각스러웠던 얘기를 하려는것이 아님니다. 그날의 나  
 日記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너저 빠져 발이 등서 사라다. 겨우배 轉轉타가 봄에 가가워서 열

에 어름디 백허나 부다 하면서 養氏所로 가다 얼은 손발을 노갈  
 불이 있을까 보나 손발의 평평 벌은 채로 책상앞에 앉으니 어름이  
 백결까바 격정 당장 시리니 격정이 다 그러도 눈보라를 무릅쓰  
 고 왔으니 그 값을 해야겠고 참인지 손이 곱아 못쓰겠고 날이 시러  
 못되어 있겠는 것을 참아가며 모두들 열심이다  
 그나마 지니고 있던 敎로도 同年 八月十五日에는 내놓게 되었읍니다  
 兄만한 아우가 없다드니 지금도 鄭漁道 金鍾景 張通叔 三兄弟 그런  
 지만 一期生은 二期生보다 훨씬 熱誠적이고 努力家들이었읍니다  
 張基泰先生이 처음 시작할 때에는 善民所가 明洞에 있었읍니다 그  
 방을 내놓게 되자 一期生들은 羅泉潭에 있는 어느 一期生의 집에서 自  
 己들끼리 모여서 각자가 鐘路三街에 방을 다서 얻어 張基泰先生을  
 모셔왔다고 합니다 지금과 달라서 배워서 果然 實用을 향수있게 하  
 인지 아닌지도 알수없었는 그 때입니다 吳今도 金尙에는 吳用을  
 할수없는 慈記術이 있읍니다  
 비단 逸淑式변이 아니라 姜毅遠式 金天濤式도 그러하겠읍니다 吳今은  
 一期生은 創業者外같이 牛車萬福을 얻어가면서 不安과 危險을 克服  
 하고 걸었던 곳에 첫거름을 드러놓은 사람들이입니다 그리고 길은  
 벌어놓은 사람들이입니다  
 우리 第二期生은 鐘路三街에서 쫓겨나자 영명 다시는 張基泰先生  
 을 모시지 못했읍니다 東大門에 있는 柳若童兄의 父親의 爭務室에  
 몇몇이 모여 문부를 계속하였읍니다 張基泰先生의 「E-1」를 빌려  
 다가 미처 못배운것을 채웠읍니다 勿論 一期生의 指導가 있었읍

四內

니다. 지금은 없지만 우리二期生을 爲하여 가장 애 쓴 柳奉煥兄  
 을 잊을수가 없읍니다. 二期生을 爲 卒業시키지 못하고 中斷된  
 善成前을 다시 이르켜 三期生을 募集한것도 一期生들이었읍니다.  
 러한 二期生들이었으나 그대도 첫거름을 드리놓은 사람들이읍니다.  
 速記士를 쓰는곳이 國會밖에 없든 그때입니다. 只今은 議會速記科  
 合계 放送速記科 速記科 重要한 一部分이 되고있읍니다만은 미 次  
 送速記科 첫거름을 드리놓은것이 우리 二期生이였읍니다. 柳常定  
 李鎭鎬 그리고 또 只今 衣食을 알수없는 劉載鐵 三兄이 當分向  
 評議院으로 해보고 結果가 좋으면 正瓦採用하겠다는 條件으로 放送  
 局에 들어갔읍니다. 이 세사람에대한 速記能力의 評議이래기보  
 오리라 그 일 自體에대한 評議이였읍니다. 放送局에서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專業이라 그 일이 갖는 價値를 알수없었기때문입니다.  
 廢食을 잊는다는 말이 修辭를 爲해서만 잊는것은 아니었읍니다.  
 宇 그대도 寢食을 잊고 努力한 結果 그들은 그날에 價値를 得  
 어 期待하였던것 以上으로 證明하였읍니다.  
 여져 이사람들에 限한것이요 遊叔氏에 限한것이 아니외  
 尹載秀 盧元德 楊佑鎭 張季永 尹炳高 李柱範 李東淳 諸兄이  
 助했던것에 첫거름을 드리놓은 사람들이읍니다.  
 大專速記高等技術學校가 國會速記課를 떠나서 있을수 없읍니다. 徐  
 高俊 高守局長 金震及速記課長을 爲始한 速記學校設立에 盡力하신 여  
 러분이 계십니다. 鄭源道 金徵基 張稷根 三兄이 힘이 큼니다.  
 任한 大專速記高等技術學校元 立法議院의 速記士 初代國會 第三代國

會기 速記士들을 士台로 하고 잇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大興速記高等校 敎材가 徒 없이 虛空에 浮잇는 點은 아닙니다  
 그 徒 전을 當아 弄은 分들을 이 름은 다 記憶하지 못해서 여기 에  
 적지 못합니다 만은 그 分들에게 感謝를 드리고 願습니다 그 分들은  
 議會速記 권을 열아 弄은 分들이기도 합니다 立憲 政體時代에 源  
 記가 受難을 當한 일이 잇습니다 만은 議會速記 亦是 쉽게 이루어  
 진 것이 아닙니다 주안과 危險을 무릅쓰고 卷 잇는 곳에 첫거름을  
 드려 놓은 사람들이 잇었기에 그 卷을 다져 扁한 사람이 잇었기  
 에 오늘날 이와 같은 卷이나마 생긴 것 입니다

大興速記高等校 敎材가 徒 없이 虛空에 浮잇는 點은 아닙니다  
 그 徒 전을 當아 弄은 分들을 이 름은 다 記憶하지 못해서 여기 에  
 적지 못합니다 만은 그 分들에게 感謝를 드리고 願습니다 그 分들은  
 議會速記 권을 열아 弄은 分들이기도 합니다 立憲 政體時代에 源  
 記가 受難을 當한 일이 잇습니다 만은 議會速記 亦是 쉽게 이루어  
 진 것이 아닙니다 주안과 危險을 무릅쓰고 卷 잇는 곳에 첫거름을  
 드려 놓은 사람들이 잇었기에 그 卷을 다져 扁한 사람이 잇었기  
 에 오늘날 이와 같은 卷이나마 생긴 것 입니다

會宗弘

먼저 여러번의 끊임없는 努力과 不屈의 意志에 의해서 視察한다  
너무 지나치게 많은 代價를 要求한 蓋緣이기는 하였지만 이 때문에  
우리가 同人의 運記를 獲得할 수 있는 그 要因이 되는지 모른다  
우리가 社會는 各기 仙侶人에게 무슨 形式으로든지 努力을 假借하  
여야만 그 代身 存在를 許容하는 모양이다 그 方法外 程度는 各  
藏各은 일치인 데 여러 사람으로 무척 찬란하게 보이는 職業도 實은  
것이요 그 反面 평 要는 해 보이는 것도 實은 定해진 理致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同人들이 取한 功 取하려고 하는 理의 理 後  
蓋에 가져 오려다 보면 별로 주저할 餘地가 없는 듯하다 이르고 보니  
평은나 不후한 運命의 동여진 것같이 들리는 데 果然 이 근소에서 自  
己 趣味의 性格에 꼭 드러나는 理은 참으로서 살어 나가면 表示하  
일어나 될 것이 아니고 보면 나 여기저기 自己 職業에 滿足을 表示하  
는 事業을 별로 보지 못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賢明한  
手段은 自己가 取한 運命에 拒逆하려는 態勢의 努力을 말아야 할 것  
이라고 敢히 말하고 싶다 然하는 이것이 나에 의해서 敢斷 樂天  
主義가 根本이고 自修에 가져온 謙愈으로 自慰樂을 삼으려는 處  
에서 說轉으로 생각되어 군이 運命의 바퀴(輪)를 멈추어 보려고  
하고 龍車도 敢지 않는다 그러나 龍車는 너무나도 적은 努力의  
힘으로 龍車의 龍이 벗어난 것은 不始의 말을 빌려 지않아도 할 수 있다

會宗弘

그런다고 나는 여기에서 宿命論者가 明白한 見解를 하고 未日을 맞  
자는 말은 아니다 남 보기에도 불상하리만큼 穢한 程度로 佞性  
을 잃고 精神을 가다듬지 못하니 女人이기 狂傲와 같은 것을 無制限  
큰 힘속에서 부리는나 보담은 躍動하는 米志가 精熱을 불러 때를  
가다리고 機會를 움지기는 것이 보다 男性적이고 著實하다는 말이  
激浪속에 颯飒하고 颯風속에 滿帆하는 벗서림들이 건은 우리 人生  
에도 適用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不滿스러운 環境속에서 안하면서도 우리 佞性을  
高되하고 우리 目標을 잃지 않도록 英氣를 기르고 基礎를 다져 다  
음 躍躍기 準備를 해두었다가 機會가 있고 매가 오면 全 精熱과  
渾身기 힘을 모아 마음껏 奮發함이 必연적이다 人生은 芥子다  
는 말도 있으나 人生은 즐거웠다 하는 한마디로 清算한 哲人도 있는 것  
이다

그 어느 것도 眞理인상 싹다  
우리도 죽법의 內前에서는 어느 한바대로 生涯를 清算해야 할 것이다  
아무 초극후 後者가 뒤가 큰 祝賀를 바 크다

54



宋貞浩

速記書達成의 要徑은 무엇이냐고 해도 努力과 忍耐일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努力하고 아무리 忍耐하여 速記를 習得했다한지라도  
練習 研究하여 熟練되지 않는다면 역시 배고 一汗이라는 馬鹿은  
그야말로 浪費에 지나지 않을것입니다

나도 가끔 體驗하고 있습니다만은 或 어떤 座席에 나가서 速記  
를 한다면 지 腹은 議事堂內에서 諸君들이 笑言을 速記할때 어떤  
사람은 말은 천천히하고 또 어떤 사람은 相當히 빨리 말하는분도  
있습니다 勿論 천천히 말하는것을 速記한다면것은 쉽습니다 그  
러나 지금까지 學校에서 敎導받은 速記보다도 빠르기는 사람이 말

이 터 빠른데 그러하여 學부 二字 배워보고 오지 못할때의 안다  
자음이란 정말 귀롭고 답답한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學  
校에서 試驗을 치를때의 焦燥함과 같을것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나  
精神적으로 말하는 苦痛이란 그에 比肩할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만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速記를 배워 여러분들의 先輩들은 다  
한번씩 갖는 것이 아니라 只今이라도 품고있는 憂慮인것입니다

나 자신은 아직 試驗速記士로서의 資格을 具備하지 못했으므로 이  
러한 이러한 苦痛을 茶餘事로 맛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自身  
의 怠慢에서 오는것이라고 생각하여 가끔 屢常한 느낌을 가져보건

이러한 이러한 苦痛을 茶餘事로 맛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自身의 怠慢에서 오는것이라고 생각하여 가끔 屢常한 느낌을 가져보건



도하는 것임니다. 다른 노점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遠記를 새로이  
배워 꾸준한 努力을 最大限度로 究釋하여 冥今의 苦境을 모면해왔  
으면하고... 그러나 이것은 다만 遠記學은 完全히 習得하였으  
나 그를 究釋한 實力 印 孰復과 練磨가 不足하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나다.

이러한 苦境을 解消하기 爲해서라도 여러분들은 卒業한 後에도  
東洋방편하지 말고 奮斗努力하며 先輩들이 받은 如斯한 逆境을 경지할  
도록 特別히 注意하여 機會있는 대로 자라를 가리지 말고 練磨에 練磨  
를 거듭하여 完全한 遠記士로서야 自負心을 갖어 달라는 것임니다.

三月 三日

說書는 第一回卒業生

五外

母枝를 惜別 하면서

金百坤

도라보건대 昨年新春 森羅萬象이 긴 冬眠에서 깰날 겨우 푸릇푸  
 릿 새잎을 自發의 품에 인져 綠蔭을 映하여 希望의 발가  
 구름 本校에 靑았으며 그야말로 速記學課程에 첫 스터드를 映  
 映했다 入校勸誘로 말한것같은데 半以上은 好奇心이었으며 速記文  
 字라나 모지뒀던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余念을 仗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처음 母日이 흐르며라 現代人의 待備해라 常識程度란  
 信念은 사라지고 이 速記란것은 라나의 學으로 못지않게 廣範圍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信念은 다시 바뀌어 努力이라는 功은 確念  
 으로 발가득을 湧기였다 短하게 비쳐주는 電燈불 아래에서 머리를  
 숙여 손을 움직이며라 速記와는 서로 理解할 程度로 精은 及들  
 어 갔던 것이다 그러나 무서운 魂은 事정없이 未獲하여 曠野는  
 으러 벗을 渴소려갔으며 그로因하여 學生들은 더욱 功은 決地  
 努力을 보다 더 傾注하게 된 것이 오늘날 一箇笑을 보게 된  
 것이다 이제 그후 際하여 一年間의 모든 變遷과 努力은 決  
 고 成되어 成지났을것을 望으며 이것이 또한 母枝가 全部  
 인가 된다 母枝 母日의 慶堂을 惜別하고 一社會人으로서 成지를  
 을 다짐며 一年前과 自己外 只수야 自己를 別해 母枝가 自己에게  
 준 偉大한 가르침이야말로 우리外 人住統路의 羅針盤이 될것은 不  
 誤못할 明確한 事實인 것이다 勿論 其間에는 多忙한 業務이 停  
 止

타서  
우려  
예제  
指專  
해주  
신  
滿先  
생  
들  
서  
의  
기  
가  
속  
속  
에  
先  
生  
任  
들  
기  
一  
言  
에  
等  
閑  
한  
우  
리  
들  
로  
서  
는  
송  
구  
한  
心  
情  
不  
樂  
할  
분  
이  
며  
나  
가  
서  
는  
先  
生  
任  
들  
기  
音  
圖  
가  
는  
바  
외  
母  
枝  
를  
벗  
내  
기  
爲  
해  
서  
冠  
會  
의  
落  
魚  
者  
가  
되  
지  
않  
는  
것  
을  
瞞  
서  
하  
는  
바  
의  
다  
이  
무  
조  
록  
願  
컨  
대  
先  
生  
任  
들  
기  
是  
어  
는  
事  
乎  
速  
記  
의  
殿  
堂  
大  
興  
速  
記  
高  
等  
及  
術  
學  
校  
永  
遠  
히  
傳  
하  
라  
母  
枝  
의  
傳  
統  
을  
傳  
하  
라  
代  
身  
하  
여  
假  
하  
려  
한  
다  
이  
것  
으  
로  
서

追 憶  
고  
개  
를  
넘  
으  
니  
아  
무  
것  
도  
보  
아  
지  
않  
아  
----  
왔  
어  
버  
린  
행  
복  
처  
럼  
뭣  
제  
대  
게  
그  
리  
도  
그  
날  
이  
줄  
허  
전  
한  
이  
너  
마  
음  
이  
여  
옛  
질  
은  
가  
이  
없  
이  
가  
이  
있  
이  
홀  
려  
황  
홀  
한  
그  
날  
이  
파  
득  
한  
사  
랑  
도  
아  
제  
도  
---  
정  
명  
돌  
아  
들  
수  
없  
는  
한  
포  
기  
의  
줄  
이  
기  
여  
아  
지  
도  
한  
고  
남  
은  
스  
라  
라  
가  
슴  
회  
어  
잡  
고  
따  
뜻  
한  
마  
음  
그  
리  
는  
아  
름  
한  
이  
가  
슴  
나  
의  
마  
음  
은  
눈  
잔  
을  
물  
라  
라  
에  
라  
자  
취  
없  
는  
꿈  
이  
방  
터  
를  
지  
달  
고  
내  
사  
아  
득  
한  
마  
음  
이  
했  
대  
어  
서  
장  
미  
의  
날  
을  
앗  
으  
리  
명  
명  
나  
으  
리  
드  
려  
도  
밤  
하  
며  
滿  
先  
生  
任  
들  
기  
一  
言  
에  
等  
閑  
한  
우  
리  
들  
로  
서  
는  
송  
구  
한  
心  
情  
不  
樂  
할  
분  
이  
며  
나  
가  
서  
는  
先  
生  
任  
들  
기  
音  
圖  
가  
는  
바  
외  
母  
枝  
를  
벗  
내  
기  
爲  
해  
서  
冠  
會  
의  
落  
魚  
者  
가  
되  
지  
않  
는  
것  
을  
瞞  
서  
하  
는  
바  
의  
다  
이  
무  
조  
록  
願  
컨  
대  
先  
生  
任  
들  
기  
是  
어  
는  
事  
乎  
速  
記  
의  
殿  
堂  
大  
興  
速  
記  
高  
等  
及  
術  
學  
校  
永  
遠  
히  
傳  
하  
라  
母  
枝  
의  
傳  
統  
을  
傳  
하  
라  
代  
身  
하  
여  
假  
하  
려  
한  
다  
이  
것  
으  
로  
서

고  
개  
를  
넘  
으  
니  
아  
무  
것  
도  
보  
아  
지  
않  
아  
----  
왔  
어  
버  
린  
행  
복  
처  
럼  
뭣  
제  
대  
게  
그  
리  
도  
그  
날  
이  
줄  
허  
전  
한  
이  
너  
마  
음  
이  
여  
옛  
질  
은  
가  
이  
없  
이  
가  
이  
있  
이  
홀  
려  
황  
홀  
한  
그  
날  
이  
파  
득  
한  
사  
랑  
도  
아  
제  
도  
---  
정  
명  
돌  
아  
들  
수  
없  
는  
한  
포  
기  
의  
줄  
이  
기  
여  
아  
지  
도  
한  
고  
남  
은  
스  
라  
라  
가  
슴  
회  
어  
잡  
고  
따  
뜻  
한  
마  
음  
그  
리  
는  
아  
름  
한  
이  
가  
슴  
나  
의  
마  
음  
은  
눈  
잔  
을  
물  
라  
라  
에  
라  
자  
취  
없  
는  
꿈  
이  
방  
터  
를  
지  
달  
고  
내  
사  
아  
득  
한  
마  
음  
이  
했  
대  
어  
서  
장  
미  
의  
날  
을  
앗  
으  
리  
명  
명  
나  
으  
리  
드  
려  
도  
밤  
하  
며  
滿  
先  
生  
任  
들  
기  
一  
言  
에  
等  
閑  
한  
우  
리  
들  
로  
서  
는  
송  
구  
한  
心  
情  
不  
樂  
할  
분  
이  
며  
나  
가  
서  
는  
先  
生  
任  
들  
기  
音  
圖  
가  
는  
바  
외  
母  
枝  
를  
벗  
내  
기  
爲  
해  
서  
冠  
會  
의  
落  
魚  
者  
가  
되  
지  
않  
는  
것  
을  
瞞  
서  
하  
는  
바  
의  
다  
이  
무  
조  
록  
願  
컨  
대  
先  
生  
任  
들  
기  
是  
어  
는  
事  
乎  
速  
記  
의  
殿  
堂  
大  
興  
速  
記  
高  
等  
及  
術  
學  
校  
永  
遠  
히  
傳  
하  
라  
母  
枝  
의  
傳  
統  
을  
傳  
하  
라  
代  
身  
하  
여  
假  
하  
려  
한  
다  
이  
것  
으  
로  
서

한  
의

# 잊지 못할 卒業生活

李 榮 堯

~ 27 ~

지난 一年을 도라다보건대 學校生活 中 平生에 잊지 못할 學校生活  
 速記 學校인 것 같다. 어느 學校生活인들 내가 나온 學校에 記憶에 서  
 립지 않을리 잊으랴만 그래도 速記 學校라 하면 나의 余生에 있어서  
 보다더 인연장은 學校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每日 民議員事務處內  
 에서 더욱이 卒業期가 迫頭한 요즘에 와서는 晝夜를 가리지 않고 全  
 神 經을 기울켜 速記 學校를 熟練시키는 그 勞苦에 말로 速記 術을 배워  
 본 우리들만이 理解할수 있는 것이라. 切實한 重慶 學校에서 學기  
 알리는 學友同志 여러분들과 같이 家庭的인 勇團氣 속에서 아기가 스러  
 은 情을 나누며 가며 今일에 이르러 別離의 送歌를 부를날이 臨  
 迫하여 몸을 생각하니 참으로 感慨가 無量하다. 卒業後면 進學하는  
 分도 있을 것이고 職業을 求하여 職場으로 가는 분도 있을 것이요 或은  
 其間에 熟達된 技術로서 實務에 나갈 同志 結婚을 하여 家庭을 이  
 립을 同志 其他 보다바는 삶을 營爲하기 위하여 各部門에 걸쳐 敏活한  
 活動을 하리라고 믿는바이다. 아무쪼록 視野를 넓혀 大志를 품고  
 謙한 社會 百折不屈의 精神으로 躍進해 나가야 함을 우리가 信條로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편을 농기가 서운하여 우리學友同志여러분

듣기 特徵이나 特征이든 面을 하나씩 틀어서 다시 한번 記號에 새  
롬게 하고자 한다. 또 조록 나가 應見으로서 잘 못 보듯이 記號가 도라  
양려내 줄 것을 앞서 求하는 바이다.

金 仁 寧 第三回 連記生中 男이난 秀才로 잘아는 處見  
學生會々長으로 도셔도 읽게 알수 있지만 그 보다는 오기  
려 그가 말할 때 잘못 弄는 듯한 發音이 더욱 인상  
깊다

金 京 子 안성을 쓰신 것이 더욱 特征입니다 한마디 더한다면  
봄까지 버들가지에 앉은 鶯

徐 東 璧 忠節사특가가 더욱 素朴美가 있어 보이나 그 보다는 描寫  
玉體로 別名으로 記號에 써롭다

洪 顯 模 같은 故實 舊田로서 門스름은 가림 곧 잘치기로 여러번  
거역에 열뿐 더오르겠지요

金 祥 培 외로 보아서는 別로 말도 없을 것 같은데 連記號를  
해讀할 때는 隣國으로 첫구진 門스름은 弄는 것으로 하  
나기 興味를 자아내 주던 親戚

李 秀 濬 키가 후리후리하고 목이 긴편임으로 한마디로 表現하  
면 기린 같다고 할까?

吳 應 이름자가 천우임으로 쉽게 알수 있지만 그 보다는 「달보  
명감」이라는 別號가 더욱 귀에 익다

崔秀玉 趙 蕭 梁 吳古 白廷 鉉 高 大 鄭 庚 甲 蘇 偉 相 金 百 坤 申 正 淳 孫 俊 禧

자는 節介라 하지만 은근히 끈기는 女子 速記生中 第一 이라고 생각된다. 學徒로는 卽검성이 學技에 곧잘 나오시는것이다  
 平安道사람이 부를때 도련히 라고 부른다하여 別號가 도련리, 임에 웃음부터 쏟아지니 어찌 卽像같이 남지않으리요. 천마나 더한다면 夕陽을 등지고 돌아가는 黃牛 一頭이 지나도록 쓰다 달다 말을 마나하니 그기 記는 알배였고 경상도 사투리로 피히 누구인지 아시겠지요?  
 허나에서 百까지 다 람쥐같이 規規있게 영리해보이는 사람  
 速記 譯說時 說一號 달리듯하 읽는것도 病이지만 가 장 높은 자리에 卽 卽한 버리가 급슬버리러는것도 特色 宗敎의 奴예는 아니지만 敎師任 敎師任하니 卽 卽한 진 親旧  
 杖餘에서 산다니까 杖餘를 가면 蘇偉相을 찾들것이나 杖餘相을 잊거든 杖餘로 가세요  
 가끔 持有한 경상도 사투리로도 有名하지만 金百坤 이름자를 두고두고 잊혀질까?  
 卽 卽한 申 淳을 잊은 사람은 우리 크리스內에 卽한 사람 눈웃음은 쳐저요  
 얼골이 좀검고 사나이피운 氣骨을 卽한 사람

20

楊	明	鏡
李	連	紅
李	正	男
洪	宗	基
楊	順	鎔
李	相	哲
金	孝	貞
朴	勝	煥
金	祐	美

이

短髮머리를 파마머리로 變化시킴과 同時에 안소던 안  
 정을 소신아가시 印煥조차 간즈럽다  
 더 두발고 털도발고 和暢한 봄날 아침 햇볕 조이는  
 白도기  
 보따거나 숨김이 없는 올바른 사나히 正男외로 . . . . .  
 남달리 빠른 말로 微笑를 뒤워가며 刻파람을 부는보  
 速記生中 가장 수집어하고 가장 침착해보이며 암달이  
 병아리를 품은듯 — 그렁지만 絶작이개요  
 別로 特徵이라는것을 모르겠는데 이것도 特徵이다  
 李蓮紅시까지 한쌍의 비둘기 한마대를 덤하면 草原  
 의 풀은 먹는소  
 天才物인 素養이 있음에도 그외 力량을 突躍치 못한  
 다는것이 無眼치 안다같다 잠바주머니에 항상 손을  
 넣고 다는 親田다  
 省勁賞을 말 対象者는 第三回生中 單한사람인것으로  
 可지 그 志를 완수가있다 목을 움추리고있는 자  
 라라고해서 어떤지 ?  
 牛月洞 놀러 갈때 뒷문 빠스카장이요 學生들이 발  
 하는 신슬쟁이 李榮春보다  
 以 上

復題

自廷錄

나쁜 글을 쓸 줄 모른다 冊字에 한번 寫表해본 일도 없다 또한  
 寫表하고 싶은 奮勵를 받아본 일도 없다 誰나 하면 나기 先天師인 文  
 學素領에 致乏이 많다는 것을 休身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내가 하고 있는 速記가 龍圖의 이니고 受動的인 例문인 것도  
 알수 없다 그러나 이 遊性에서 이번 一覽을 들게 된 것을 無  
 限기뻐하며 劣品을 造作하기에는 疲倦하기로 했다  
 나는 經濟라는 두 글자를 좋아한다 내가 앞으로 한 營業이 經  
 濟이고 生活할 것이 經濟生活인 例문이다 그럼면 여기서 우리가  
 年間이라는 歲日을 速記라는 것까 인연을 맺어 닳이내 虛내하는 두  
 中 어느 生活을 勉는 가하는 것은 餘息을 보아야 하지 않지만 如何한 功  
 은 그 무엇을 느끼는 것이 없으니 내가 經濟를 좋아 하는 것만 處見  
 또한 速記의 두 글자를 無視할 수 없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處見  
 다 우리가 여기서 論說 速記에 처해서 그에 대한 知識은 여러 先  
 輩先生 在해서부터 該念 由未 活動에 意義 究達等은 잘 들어서  
 알지만 좀더 거기에 餘地를 우리가 直接 體驗하고 經驗한 것을 그  
 台상에 加筆코자 하니 이 未熟은 누가 險하지나 表하지나 介意  
 않고 오직 이 亂文을 構成하기에 汲々하고저 한다 우리가 速記가  
 的 見地에서 考察하기 쉽다 나는 이것이 不滿意이다 또 普通 불리  
 ~ 31 ~  
 워치는 術에서 불패 速記하면 그와 글자가 불지 者의 글자가



불어서 速記者라고는 하지 않는다 亦是 이것도 不齊이다 그러나  
 學이나 術이나 士나 者나 固히 不齊인 外面上으로는 또는 修養面에  
 서는 若干의 差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本領面인 面에 있어서  
 는 마찬가지로 發展인 것 같기도 하다 따라서 그렇게 불리워 지는 것이 宿命인 것  
 같기도 하고 發展인 것 같기도 하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自慰하고 있  
 다 그러나 나는 이 自慰에 満足하지 않고 이 速記發展을 爲해서  
 앞으로 研究할 것이며 最後의 目標을 獲得하는 그때까지 勇力의  
 速記文字(91)이 열개로 窮極의 眞理를 究기爲해서 不斷의 努力  
 을 傾注할 것이다 이것은 突破하기爲해서 速記의 두文字가 열개聖  
 으로 된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도 片言의 一片이요 虛空을  
 더듬는 妄想인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것도 現時의 一片이요 虛空을  
 시키기란 研究란 逆燒이란 速記發展의 主原因인 速記士需要가 정  
 은 即 飽和狀態를 形狀하고 있는 것이 主原의 될 것이다 그러나 이  
 主原이 되는 原因은 왜 그러한 把住를 守하게 되는가? 競爭이 있는  
 곳에 發展이 있는 곳이다 發展이 있는 곳에 優劣의 있는 것이다 그  
 러나 優劣의 競爭은 곧 發展을 意味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의 速記發展은 이 飽和狀態解決의 社會的 條件으로 先決되어야 할 것  
 이다 이 모든 難點의 克服만이 우리의 不平한 社會를 先決하여야 할 것  
 에서 學 士에서 者로 特殊에서 普通으로 昇進하는 데 한 도둑의  
 되지 않을 것이다 速記는 受勳의이다 勿論 能率에 대해서 消極的인  
 것이나 受勳이라고 해서 消極의 全部는 아닐 것이다 三香가 眞精

七 外



# 원망이 없이

솔 栝 義

남기 안계됨이 容色이 으뜸이 아니거늘 非 容色이 不美다 하여  
 버림받는 이제에 생각하니 내가 止할바를 알지 못하는 허물이 있  
 는도다 靚頰이며 隣近에도 오를날까지 謙心으로서 待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내일같이 救해것만 慰撫之言이 순허었고 가는 모퉁이에  
 어 餽送함도 없나니 더욱 슬픈마음 가는바에 부개를 더치는도  
 다 제 貧窶할때 나를 밟아 尊卑로玉으로 여기었고 나도 婦事  
 에 婦道에 어김이없고 致致히 行하여 貧窶를 免했거든 오늘이  
 이 處事는 古法에 三不去에 어김이니 이어져할 일일가 必竟  
 나외같은 이 處境을 新舊도 당하리니 피리 열려 이 禍를 予防해  
 주고저하나 내 一身도 容納못한내라 어찌 거기까지 미치리오  
 前爭를 생각하고 이 處境을 생각하니 冤痛함과 抑鬱함을 形言치 못  
 하는도다 丈夫의 處事로서 이같이 하단말인가 ?  
 習々한 東南風에도 구름커머서 비내리나니  
 勉強하여 마음을 한가지로 할지언정 마땅히 노여움을 두지말거라  
 뜻깊이여 고사리를 取함이며 뿌리때문은 아니니  
 德音은 어그려짐이 없거든 너와같이 죽으리로다

더내고 더딘 거름이며 속마음의 어김이라  
 멀리도 아니하고 畿內에서 나를 보내는도다

丙

누가 온나물을 쓰다고 하도뇨 그달기 병이와 같도다

新婚을 기꺼워함이며 믿게도같이 아무와도 같이하도다

新婚을 만나매 이 내 妾色이 흐르나 내기 舊은은 밝음이 잇건은

新婚을 즐김에 나를 금지못하다 하도다

이번기 新婚을랑 나와같이 厄에 불지말자코져하나

내몸도 容納지못하는 내가 하물며 新婚을 念處할까

깊은곳에 나감에는 때며 幽로써요

얕은곳에 나감에는 未身으로 나갠도다

무엇이 잇으며 무엇이 없노코져서 힘써 求함며

무릇 隣近에 傷함이 잇음에 盡力하여 救했것만은

날로서 養備했다하거 아니하고 도리혀 날로서 冤수로만는도다

이미 나의 德을 가려우나 善論이 無用이요

前日의 罪면 깨질까 불면 나를까하며 너를 念處하였더니

이미 걱정이 없어진 오늘에 와서는 나를 善處에 비하는가

내 김치와 씨래기를 쌓았음이여 또한 겨울을 막음이려니

너기 新婚을 기꺼워함이며 날로써 困함을 막었도다

저프라고 끝을 버어이미 나에게 끼로움을 주나

에에 내가 내게 버물려 쉬든얼을 생각지않도다

召集令狀을 받고

徐秉璽

六三五 勸亂과 함께 藥園의 靑壯年들에게 許친 慘禍가 多大함을 모  
 를 璽 없었지만 지금까지 紛擾를 蒙하지 못한 체 또한 해를 보내고 四三  
 七年 甲午年을 마지남에 三伯罹霜 긴긴 才月에 살고 살은 努力의  
 結實을 맺는 高等學校의 卒業자 남게 大學의 志願者數는 各大學마다  
 超滿員을 이루고 있는 그 틈에 한족들은 치지하고 必死의나 不幸한 落  
 弟의 所致로 乙未 年 行營에 몸을 喪고 靈記學校에 下隊하여 通  
 退證을 가지고 忠南과 全北의 境界를 갈인 無岳山 줄기 밑 양지족  
 의 困寂한 山고향에 그리워 집에 찾아들며 어머니를 부르는데 是  
 아마도 어릴때의 하든것과 相通히리가 그러나 번기시는 어머니의  
 顔像은 어전지 생기가 돌아왔다  
 豫則했던 召集令狀 生後에 처음 받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인가  
 어머니로부터 어머니진 召集令狀 어전지 설레는 가슴 혀제하기  
 어려웠다 出頭期인 四三七年 四月 二十六日은 아직 도 열흘이 남았  
 으나 이 열흘은 한가할때의 한時間만도 못하였다 열흘동안은  
 저할줄 모르고 다 지내고는 二十六日 새벽에 어머니를 모시고 大  
 田가는 貨物列車에 몸을 실었 忠南學生들의 徵集令인 大田元東國  
 民學校々庭에 到着하니 아미 出頭한 學生數는 부러 천명을 넘을 것  
 같았다 우리가 元洞國民學校에 到着했을때는 午前八時 三十分이였는  
 데 그후에도 얼마나 많히 모는지 헤아리기조차 困難하였다 이

은 學生들을 다 審査하려면 하루에는 다 살 것 같지를 알았더라 어떻게  
해서 다 하려는가 위심이였더라 그런데 午前九時부터 始作한다  
審査는 여기에도 고려인타임이 있는지 豫定時間보다 物진時間중 늦  
어서야 始作하여 몇몇君 學生들은 심사하고 나서부터의 空氣는 매우  
微妙하게 돌았다 即 嚴正에 流行된 말로 시서한 學校는 保留가  
안된다 등 元素가 말의 많은 學生들向에는 더욱 발어 많았다 其  
剎那 열에 세신 어머니의 말은 심은 차마 子息기 心痛으로는 볼수  
없었으나 혼자 있는 것 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든든하였다 우리  
部은 審査마저 늦어서 午後五時부터 始作되었는데 먼저 심사를 마  
치고 나온 친구들의 말에 依하니 速記學校같은 學校는 名譽조차  
내놓지 못할 形便이라는 말을 듣고 우울한 마음은 지닌채 審査場에  
들어 가나 전두버리고 앉은 審査官은 本校의 在場諸君을 보자마자  
「兩君」이라 소리칠까 同時에 周圍에 있는 警察官은 即時 身體検査場  
에 引導했다 身體検査라 마나 이미 決定的인 것! 甲種合格證書를  
가지고 不保留學生들만이 올라갈 수 있는 三층에 올라가 論山大學에  
入學時를 기다리고 있자니 고등사 심한 심장의 膈박은 순서를 알고  
마구 뛰었다 그렇지만 한쪽에서 一部學生들은 노래를 부르다가  
면 一部學生들은 할숙해전 自容에 발등만을 두러 지라고 쳐다보는  
學生들中에 한몇 져여있는 이 地情은 限없는 공포와 저주에 사며  
설레는 가슴을 부등켜안고 앉았으려하자 運動場에서 三층을 바라  
보시며 「내려와라」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이루어 말한 나위없이 안  
다카웠다 그런가하면 一部學生들의 三十六戒! 啄년까지 保

留의 처럼이든 串枝가 今年에는 어저서 不保留냐는 意圖에서 미리  
이것을 볼때 意圖이 있는 獲者가 마음의 요동이 어찌 없으리 하나  
끝에 가서 어떻게 될것이냐 하는 마음과 되는 대로 끝까지 남어있는  
操生들과 行動을 같이 取해 볼까하는 생각에서 주저하다가 한편기

希望과 어버님  
의 애원, 참지  
못하고 三十六  
飛에 같은 步  
淵를 取하자  
決心하고 三층  
에서 내려와 어  
버님을 앞세우  
고 下宿에 가지  
갈때의 兩장이  
녹을수 있는 落  
解物이라면 다  
꼭아서 없어졌으리라  
그러나 溫慈하신  
아버님의 下愈으로 實事의  
上京하여 四三斗의 一伯同의 受業을 마치며 慈愛하신 어머니의  
恩惠를 생각하며 慈惠로우신 수영 어머니님의 이글은 삼가 올리는  
바이다

追

憶

내가 東天에 이수한 달아나면  
나는 西空에 자는  
태陽이라오  
내가 影을 影行하는 影이라면  
너는 나를 전지주는  
모아시스란다

내故郷

林傳相

~3P~

온갖 生物이 高요지 잠들고있는 방이다 醒한 都京의 輪音도  
 잠이 들었는지 國은 속은 듯이 고요한데 이따금 분——하고 急  
 히 달아가는 自動車의 목배인 소경만이 周圍의 樹叢을 계트리고  
 들러올뿐 / 이렇듯이 밤은 고요히 자꾸만 전어가있지만 나만이  
 홀로 잠 못이룬다 手無해를 고쳐고쳐 자라온 積은 敵營을 뒤로하  
 고 허루어침 폭풍에 휩쓸려 山岳아래 터를 잡고 살아온지 一年  
 을 지나면서 兀突한 山岳에 잠 못이루고 故鄉을 追憶  
 하면서 압모르는 눈물을 지운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故鄉 /  
 그리운 故鄉 / 비친듯 불려보는 나의 夢은 집집마다 夢이런  
 권 끝쪽권을 지나 끝없는 故鄉의 情을 限限히 海에인하 夢이런  
 방수아파트 살구꽃이 연지를 적고 겨나리 진달래가 夢이 웃을때면  
 다해들외 즐거운 웃음소리 온 마을에 가득히 차고 여름이면 雨가  
 진 線陰에서 더위를 청거하며 울어대는 夢이외 가날포 베로되 속  
 에 처는듯 더위가 질어가는곳 마을앞에 웃뜩웃은 너더나무 그늘  
 에는 春々들 두셋이 모여 앉아서 茗談을 주고받는 모습에 汗폭이  
 風聲惠인상 눈에 익은곳 가을이면 秋오는 桐樹의 온 마을은  
 뒤덮고 菊花꽃 한배자 그늘하 질어갈때 키러기때 모이들여 초키를  
 別축하는곳 겨울이면 墓塚三間 눈이싸이고 父母兄弟 塚로가애 모  
 여 앉아서 밤이 산어가는줄 모르고 이새가하든 바로 이곳이  
 내 故鄉이다 오—— 故鄉 내고향 어찌면 그래도 그리워지  
 나 故鄉은 끝없이 故鄉을 海에여본다 이제는 그것도 勿면치않아



痕矣를 거더차고 일어섯다 나는 거기 舞臺의으로 門을 열고 밖  
 으로 뛰어나와 대아래 뜰로 내려섯다 階마침 불어오는 薰風이  
 간스려이 살결을 스쳐지나고 은빛 月光이 高요히 大靑위에 흐르다  
 나는 발무처럼 서있을뿐 춤처럼 움직일준 보른다 그래도 마음만  
 은 如前히 高향의 잠든 마음을 헤멘다 이득고 저멀리 高향하는  
 을 바라보면서 父을任의 모음을 머리속에 그려보고는 見님 그래운  
 동생 그리고 東瀛이 이렇게 차려로 그려보면서 열큰에 微矣를  
 뉘올때 高요히 흐르는 月光이 나의 열큰을 어루만져줄뿐이 가슴  
 에 타오른 熱을 억제할 견없고 열큰을 자꾸만 후츨거린다 이득고  
 나는 발을 옮기서 發다갓다 거년면서 할줄모르는 노래나마 불러도  
 보나 발에는 靄이 차츰차츰 식어가고 온 몸이 소름이 좃겨  
 친다 팽팽한 杖문살에 걸린 旒紗가 무겁게 두번을 울린다  
 김건너 저편엔 街路燈이 즐리웃듯 점박거리고 밤은 高요히 잠들은  
 大靑을 실고 꿈나라로 한거름 한거름 옮겨 놓는다 나는 실음없  
 이 나를 잃고 잠자리를 찾았다

花外

# 問

# 訊

1. 당선의 信條

2. 당선의 平生 권하는 것은?

3. 一身을 回顧하는 때

4. 卒業後의 갈 곳은?

5. 당선의 誌願은 何인가? 어떤 사상이나?

6. 學友에 남기고 싶은 말은?

7. 당선이 본 先生을

A 金鎭基 先生

B 鄭源道 先生

張惠根 先生

孫 淺 德

1. 북쪽의 무리를 평하라  
2. 이름 있는 거슬러

3. 돈과 남음!

4. 무덤인가 하나 일우 하고려

5. 좀 늦게 예뻐이 하고

6. 남자에게 예의가 있으면  
여자에게 美가 있으면 같다

예의는 주위에서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

7. A. 침착성이 더욱 온근히

위험스러워

B. 선심남도 악을 아사는지 모르?

C. 침후천미함이 때를 현상케

함이나

吳 憲

1. 自我

2. 악질의

3. 功績의 결과 같다

4. 實業界

5. 지나간 사실

6. 후배의 유임에 전력을 다 해주  
십시오

7.

4 3 2 1

1 自我意識의 외화  
 2 異化現象의 외화  
 3 異化現象의 精은 佛의 精神  
 4 佛의 精神이 佛의 精神

金 仁 寧

7 6 5 4 3 2 1

1 自己를 아는 良心的 人間이 되  
 2 는 것들을 찬송하면서 두 개로 나가  
 3 기 원할뿐 속기가 어떤 것인지 잘 알았소  
 4 이다  
 5 글세요 2  
 6 알수없지요  
 7 不是한 異 만이 지도해주세요  
 A 父와 같이 원한은 신 先生任  
 B 어휘면 그렇게 앞전하신가  
 C Romantic

崔 秀 玉

7 6 5

1 社會의 實現이라든가  
 2 理想의 實現이라든가  
 3 理想의 實現이라든가  
 4 理想의 實現이라든가  
 5 理想의 實現이라든가  
 6 理想의 實現이라든가  
 7 理想의 實現이라든가

(註四번五번이 社會의)















全 龍 成

7 6 5 4 3 2 1 3

信條가 안되어서도  
원래는 것이 없기를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살아갈지  
연제인지 아무한지  
감사합니다  
A. 버마유의 스승  
B. 버마카고신은 (현상)  
C. 父老의 任 (技術이)

2 1

비바라 부는 다진  
다른 주 밤이  
가르쳐서 難  
軌道(川) 難  
生汽車를 타고  
안도 難  
終着驛까지 步車로 到着할지

申 正 彦

3

5 4

6

7

은연 勿詩 運轉曲折이 많을테고  
다반 人爲的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  
肉体的으로든 매우 苦痛스러웠든  
年이 頃의 二反面 精神으로든  
다반 敎訓의 一年이 있나 苦盡甘來  
는 말도 있은시  
가기도 어리운 가엾은 子  
어려운 立場 하데 約二 前後  
무너져 버려도 敎養의 功  
가 잘 될 수 있는 事 業을 經營하고  
상상을 즐기며 사는 生活을 가진 사  
람이든 OK지  
速記처럼 一부분 十까지가 努力이  
고는 하지만 殊 多 苦 勞 的으로  
가르치서 功 益으로 하여 功 益으로  
度를 積小이 成大하고 功 益으로  
카 變 成  
A 金 鎭 基 先生  
B 郵 務 道  
C 張 德 道





3 2 1  
 3 2 1  
 7 6 5 4 3 2 1

1 良<이 許恭하지 않느 良을  
 2 하지 않을 許恭을  
 3 어떻게 許恭을  
 4 하는 것임이나 許恭을 許恭을  
 5 時間에 許恭을 許恭을  
 6 可能하지 許恭을 許恭을  
 7 보려고 許恭을 許恭을

1 性의 許恭에 許恭이 許恭은  
 2 性의 許恭에 許恭이 許恭은  
 3 性의 許恭에 許恭이 許恭은  
 4 性의 許恭에 許恭이 許恭은  
 5 性의 許恭에 許恭이 許恭은  
 6 性의 許恭에 許恭이 許恭은  
 7 性의 許恭에 許恭이 許恭은

A 性의 許恭이 許恭이  
 B 性의 許恭이 許恭이  
 C 性의 許恭이 許恭이

李 翊 哲  
 吳 世 景

7 6 5 4 3 2 1  
 7 6 5 4 3 2 1

1 人格定 許恭  
 2 人格定 許恭  
 3 人格定 許恭  
 4 人格定 許恭  
 5 人格定 許恭  
 6 人格定 許恭  
 7 人格定 許恭

1 功勞 許恭  
 2 功勞 許恭  
 3 功勞 許恭  
 4 功勞 許恭  
 5 功勞 許恭  
 6 功勞 許恭  
 7 功勞 許恭

A 性의 許恭이 許恭이  
 B 性의 許恭이 許恭이  
 C 性의 許恭이 許恭이

楊 翊 順 顯







# 목욕탕기계서

홍종기

이 협약하고 국도기 생존정쟁의 심한 세력에서 모튼 허석과  
 가석의 예석절차를 펼치고 만불상같은 상과귀천의 계급의식은 초월  
 한곳이 이 우주상에 었다면 그것은 오직 목욕탕법이다 그곳은  
 하느님께서 불려주신 옥체 그것만의 진열소이며 아마 그것만이 지  
 금까지 간직되어온 파라다이스의 유물일지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지 오천여년 그간 엄청난 수의 죄악이 지구상에서 연출 되었  
 다 물론 그것의 장본인은 인간이다 모두가 생존에대한 투쟁이  
 요 권력계급의식에대한 쟁탈전의 소인이었다 그러한 경쟁과 투쟁  
 은 심연의 피화소인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사찰에서도 일어났다 그  
 투쟁은 파기도 그랬거니와 천재도 그러하며 미개 또한 그러할것이다  
 그러나 북극담배는 어떤가? 실패가하나 걸치지 않는 하느님의  
 작품만이 승적일뿐이다 뜻근한 물속에 틀어앉은 사람은 내세상이  
 나 만난듯 나리를 족벌교 번듯이 기대어왔다 어떤 고인배는 노  
 래가락을 뽐는다 그 목소리는 탕내의 보안 수증기와같이 은근한  
 맛이 있으며 알게 해 돌면서 그려 유관스럽지가 않다 만사태평한  
 자세이며 만사태평한 표이다 누구 하나 감정이나 불만의 표시가  
 없나 다만 북북히 자기 할말만을 할뿐이다 허식과 가식이 없  
 다 상쾌키천의 신분이 고저가 없다 사치와 허영이 엇보이지 않는  
 선 단자 차는냄에서 만드신 인간 그대로이다 조작이 없는 순수  
 선 그것만이래 그러나 이권것에 뽐위는 너무나도 적으며 그순간

은 너무나 잘다 어느날 북쪽 땅에서 이런 일이 왔었다 조그바  
 한 부주의로 감정이 좋지 못했던 두 젊은이 여가서 더 긴말 할  
 것없이 우리 나서합시다. 이렇게 일단 그들기 좁한 충동은 면했  
 다 그러나 그후의 일이 웃지 못할 장판이였다 서로를 부끄러워함인지 하  
 웃을 입고난 두 청년중 한 청년. 自身의 생존을 부끄러워함인지 하  
 늘기 작난이 심하다는 것인지 뒤통수를 끊으며 아. 하는 탄식조와  
 패용합니다. 그만 저의 부주의로 해면서 자기기 잘못으로 돌린다  
 상대자는 육군 소령이였으나 쓴웃음친 청년은 상사였기때문에 이  
 무슨 사형의 결함이요? 사실 이 사형에는 우대의 육안으로서  
 구별하기 힘들만치 시종무궁한 계급이 나열되었고 모든 인물이 서  
 로들 높은 계급의 방향으로 맹 돌진한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  
 저러는 너무나 늦은감이난다 그러나 인간이 지능은 이 껍도름  
 이랄하여 지름길을 찾으려고 애쓴다. 마야 이러한 360과정이 인  
 생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지름길은 하늘의 계시에 여타가지 않는  
 에게만 허용된다. 설혹 그 길로 가는 자가 지름길을 찾을수있다면 그  
 는 북쪽 땅의 계사를 저버린 것이며 시종일관 죄악의 죄를 부린 것이  
 며. 그사가 왓트는 정우는 그 알뜰한 인생을 잃는 것이다. 우리는  
 비로소 짧은 순간이요 적은 범위내이지만 북쪽 땅에서나마 사회생활의  
 모든 부질없는 인간이 모순을 빚어버려자 심판세기 볼때오르조소의  
 정선으로 돌아가자. 판과와 노자의 사상을 영원히 이어받어도  
 좋다. 예수의 백애사상을 실현에 옮겨도 좋다. 온 세상 만민의  
 이대로가 좋다. 이대로 천세기 만세기 영원히 계속되라. 그러나  
 면 지구상의 새로운 어떤 동산이 창설되리라.





未竟成述記士 全龍成

「발리」 저작하다.  
 「명사」 반신이다.  
 「오르」 오르다. 「다임이」 오다.  
 시공은 아래것중에 큰나뭇처럼  
 들어 뻗어 청초를 입게서 푸른하  
 는 감정에 가가운 시간의 엄중  
 들이려 오르다 K백사위 시공  
 강연하였다 연사를 제축하는  
 바수소리가 우렁차렷 시공관을  
 흔든다 허나찰것없어 손벽들치  
 것만 이층 원면축 제연 앞자리  
 에 앉은 이까 바야흐로 속기  
 사가 되려는 남여 두학생사이에  
 는 아무런지도 상다는듯 오려려  
 명랑한 표정속에 말이 오고간다  
 「발」 발나술것 관상아요  
 「두근」 두근 두근 가가하고 하여간 해

농장교 쓰도록해서다  
 영도알처럼 깨무러보고싶은 Y  
 당의 이리광을 발이 참나무막대  
 기보다 딱딱한 H군이 혼자말을  
 하듯이 써볼거했다  
 「제가 못받아 쓰는거」 H씨가 받아  
 쓰셔야 되요  
 용한 말뚝합니까 미쓰Y의 못받  
 어쓰는것을 어떻게안담받으요  
 「H군...」  
 Y양은 비웃으며 미쓰는 웃음  
 으로 지과와 실연은 자인했다  
 「공(영)찬」 것이지 H군은도마(영)찬  
 「C선생의 발췌문이 었지하요요?」 속  
 기를 날때까지 H군은한 책임이 하  
 름다고요  
 Y양이 첫처럼해서 키엄게 조카주  
 는방에 H군은 쏘스리가졌다  
 「조」  
 입말들을 몇달 앞두고 조의 소  
 기원선의 맛을 보자고 바쳐없는  
 두학생사이의 스구작은 열사랑의  
 거를 기우리게했다

3월 27일 : 한시간에 오천한 받고  
 팔려온 셈으로 어디 한번 해볼  
 시다. H군의 다구지계 서두  
 는 말을 흥두째 내뱉듯 옆자리  
 의 청년이 발아서  
 다? 한시간에 오천한 받니까?  
 고 호기차게 물어왔다.  
 H군은 부안아닌 부안을 당한  
 체 병병하게 청년은 바라보고  
 대답을 생각하는적에 청년은 미  
 천 H군은 대답도 하기전에 저  
 도 속기를 배우고 왔읍니다 저  
 표려석인데...  
 다? 그러세요?  
 저희들은 알파식을 합니다 나  
 알파식? 하고 청년은 잠시 생  
 각하드나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저 그런 국의 속기 학교로군요?  
 하고 묻는다  
 예! 나  
 네! 나  
 참전리 알파드 종을 Y방까지도

밤늦은 때이며 가볍게 대답했다 그  
 들은 차담모를 우릴감을 두겨부  
 는 것이었다 청년과 H군 사이에  
 는 H군의 자랑이 버려졌다 청년  
 은 주책없이 자기가 배우고 있다  
 는 식한은 자랑했다  
 H군의 말이 많아서 좋고 뭐? 여섯  
 달이면 졸업한다니 듣고 그러나  
 H군은 그의 자랑을 듣고만 있다  
 열에서 흥망을 듣고 Y방은 분산  
 년의 대우를 제 몫 추듯하는  
 년의 대우를 제 몫 추듯하는  
 임기는 하고 한 면으로 H군은  
 은 근히 원망스러워 청년을 향하  
 여가 왜고려서 속기사가 몇이  
 나 되게요? 당한 청년의 말은 몇  
 동경명은 당한 청년의 말은 몇  
 이 변하자 또 우레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H군과 Y방이 문득 몸을 돌려  
 자리를 잡자 사회가 임에서 둘러

여러분! 하고 황송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공사간에 분양하실러  
 임디 드물러 하고 이취감 많이 모  
 연우셔서 대단히 감사하니다. 연  
 사의 사정대로 시간이 지진 한  
 시간이 나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금년 다음으로 부러 K박사의 시  
 주한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날동  
 가리니 해주세요.  
 K박사의 레를 마치자 절구통같이  
 생생한 K박사가 레이불 앞으로  
 나와서 그야말로 벗삼총재 생김  
 기운이 가득 K박사였다.  
 K박사야! 사면여러분! 나 오늘  
 시회를 열려는 장내는 물뿌렸듯  
 구구한데 종이위를 줄다듬치듯 하  
 는 나노와 Y박사의 연필소리 누  
 리며 뽀얀말을 가먹는듯 가뻐다.  
 Y박사는 K박사의 말을 반어 스  
 면면으로 K박사의 말을 따라  
 리가면 부단한 말이 떨어지는 나  
 조수들은 시키하는 듯한 눈초리로 할

곳 보고 또 보고 하웠다.  
 한시간은 기났으리라. 가득이 나  
 Y박사는 설중이나서 가득이 나  
 반어 쓸수 없는 주제에 터부 바  
 지는 말이 많았다. 그렇지만 참  
 니다. 뽀얀말이 다. 흥기다. 만은 바지  
 는 법이 없다.  
 Y박사는 끝내 삼십분은 더 계속  
 하리 못하고 손을 들고 말았다. 연  
 판을 돌자마자 열에서 한시간  
 전부터 고개를 까두등지리며 보  
 고셨던 단발머리 여학생이 삼십분  
 면드리며  
 「오제 뭐예요? 하고 바꿈히  
 다본다. 속기예요. 여학생이 원하  
 는 대답보다는 너무 단순한 대  
 답을 하며 종이를 접어 들려했다.  
 그때 또 단발머리 여학생은  
 이리 뭐예요 하고 신기한듯 꾸  
 부러진 속기문자 하나를 가르쳤  
 다. 그린 속기문자 하나를 가르쳤  
 그렇게 쓴 거예요.

네! 이진 되라고 입나요 단발머  
 리 여학생은 좀 적극적으로 한  
 술을 죽가르며 물끓게하여 열을  
 Y양은 가슴이 울끓게하여 열을  
 이 뜨리워감을 느꼈다. 하기는  
 속기때론 한때부터 행하여나  
 보라자나 알을하여서 종이를 접어  
 치우려 했던것이 다 참나 무같이  
 몇작은 허군이 Y양의 망신을  
 눈치채고 쓰빙그러 웃으며  
 이렇게 쓰는것이 재미있어 보이  
 나요? 하고 가로 채웠다. 보이  
 네! 정말...! 변습하려 손잡는다.  
 지이들은 더듬으며 입을 끌어들  
 짓보세요 허군은 이레막 끌어들  
 은 기억을 더듬으며 입을 끌어들  
 했다. 민중이 도란에서 허두이는  
 이판국씨 짐치 사슴이 단 빛을수없  
 을번더러! 단발머리 여학생이  
 감탄하며 입을 열었다. Y양은 무표  
 정하게 입을 열었다.

내도 그만일까? 학교로 갈까?  
 필심이냐 먹고 가야지요 Y양은  
 무의미한 웃음을 리으며 일어섰  
 다. 허군과 Y양은 어찌론 간즈  
 러히 문물나섰다.  
 게다가 싸구려 점심을 사지요  
 그만 두세요. 제가 살려내  
 신까? Y양의 말이 채 끝나하  
 기도전에 Y양의 말이 현판  
 을 주머니에 끼웠으며 이방이면  
 똥까스를 사지요. Y양의 열술을  
 번갈라 본다.  
 너! 나! 허씨도 오셨군요. 어디  
 앉아 주세요.  
 나! Y양이 있어야죠 참  
 Y양! 허군은 단정하게  
 장라! 이송속가름 하면 될거야!  
 하하! 허군!



教職員一覽

校長 崔 璉 宇 月邑 鍾路區 惠化洞 二七〇六

副校長 徐 商 俊 京畿 昌成洞 一一七

教 監 金 震 熙 平北 龜山区 元慶路 一街 二二〇二

遠記樓 表 校 金 鎮 基 江原 鍾路區 昌成洞 一一七

張 惠 根 月邑

鄭 源 道 勸農洞 一五〇

經濟學 講 師 金 興 鎭 忠南 龜山区 厚岩洞 四二

法 律 徐 一 教 慶北 鍾路區 樂園洞 二八三才 一六

庶務 韓 鐘 英 平北 清雲洞 七

卒業生名録

鄭 寅 甲

忠南 洪城郡 銀河面 棟松里  
村名 鐘路区 堅志洞 八四

楊 明 鎖

村名 鳳翼洞 一三〇  
宛西洞 一六三

高 丈 鎖

忠南 沃城郡 慶州邑 会岩里 四二七  
村名 永登浦 鴨梁津 二〇五

楊 順 鎖

村名 鐘路区 鳳翼洞 一三三  
苑西洞 一六三

吳 吉 景

慶南 宜寧郡 柳谷面 上村里 二二三  
村名 康大門 新設洞 一三三外 一五一

林 偉 相

忠南 扶餘郡 扶餘面 松谷里  
村名 鐘路区 孝子洞 一三八外 一七

李 正 男

黃海 鳳山郡 双山面 竜山里 五九九  
村名 竜山区 厚岩洞 山外 一



金百坤

徐東基

金仁寧

員興

崔秀玉

沃泉基

李連紅

孫浚禧

廈南 固城郡 永吾面 吾西里 二五八

川邑 麻浦區 阿峴洞 六一〇六一

全北 益山郡 童安面 松山里 三五五

川邑 永登浦 巖石洞 三〇外一二

忠清 天安郡 聖居面 天興里 九四

川邑 龜山區 漫江路 三街 四〇

咸南 定平郡 新上面 新成里 九七

川邑 東大門 踏十里 七統五班

平南 江西郡 草里面 寶鳳里 二七九

川邑 鍾路區 鍾路 六街九四

川邑 鍾路區 社稷洞 二回

川邑 體府洞 二〇外十一

咸南 汝京郡 雪興面 雪興里 二八三

川邑 龜山區 青波洞 三街 一〇九外十三

第十條 同人 同窓會  
會則

第十一條 同人 同窓會  
會則

第十二條 同人 同窓會  
會則

第十三條 同人 同窓會  
會則

第十四條 同人 同窓會  
會則

第十五條 同人 同窓會  
會則

一、 會則遵守  
二、 會費納付  
三、 其他總公則付 決議後 要項  
本公則 役員外 定數外 選任 否也  
前項外 役員外 總公則付 正公會中으로 幹事 若干名을 選任 한다

第六條

役員의 任期는 屯年으로 한다  
(役員의 任務)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理監督 한다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 하며 會長 有故時 會長을 代理 한다  
幹事는 會長의 指導를 받아 會務에 從事 한다

第七條

(名譽 會長)  
本會에는 名譽會長 一名을 두되 本校々長을 推戴 한다  
(顧問)  
本會에는 顧問 若干名을 들추고 顧問은 名譽會長이 委囑한다

第九條

(總會 及 召集 議事進行方法)  
總會는 定期總會 及 臨時總會가 있으며 定期總會는 會長이 每年 四月中에 召集하며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로 認定할 때 召集 五分九一以上の 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 이를 遲滯 없이 召集 한다  
前項의 召集은 日刊紙 및 라디오를 通告하여 集어도 一週日 前에 公告 한다

第十條

(總會의 權限)  
總會에서는 左記事項을 討議 및 議決 한다  
一 豫算 및 其他 財政에 關한 事項  
二 會則改正에 關한 事項

第十條

三 其他 重要한 事項

正會 負全 入會 命을 納付 計財 非 計財 入會 金上 會長이 名譽會  
長耳 相議 計財 決定 計財  
但 必 要則 計財 總會計 決議則 依計財 其他 會費은 徵收  
할 수 있다

國 務 院 令 第 一 〇 九 號

同心會名譽會員

~任~

姓 各 現 職 備 考

朴鍾萬 國學大學學長(初代校長)

本籍

金用兩 二代校長

京畿

崔廷宇 國會事務總長(現校長)

付量

徐尚俊 國會議事局長(副校長)

京畿

金震熙 國會議事課長(技 監)

平北

張基泰

付量

金鎡基 國會議事士(教授)

江原

張真根

付量

吳潤玉 韓國銀行

付量

逸致式速記創業者  
逸致式速記養成所  
一期卒業生

十三



李圭興 國防部

洪準杓 四川州養成所設立

鄭源通 國會速記士 (教授)

柳若龍 國會速記士

韓奎勳

李鍾錫 時事通信記者

尹載方 國會速記士

盧元鎬

楊伯賢

姜必恭 國際通信記者

黃善默 敬員

速成式速記養成所  
一期卒業生

右發二期卒業生  
(四川州養成所國會速記士代表團員)

二期卒業生

石校第三期卒業

慶北

江原

付卷

付卷

忠南

付卷

京畿

平南

付卷

付卷

全北

李海祥 朝鮮日報記者  
韓鍾瑛 慶務主任

遠波式速記養成所  
第三期卒業

\*以外에 會員이 有計으나 所在地不詳으로 記入未始함은  
遺憾으로 여기며 後記하기로 함

平北 志南

### 同窓會 正會員 名錄

姓	名	本籍	現職	回國	姓	名	本籍	現職	回國
鄭	潤	黃海		一回	金	信子	咸北		一回
宋	貞浩	(慶南)	國會速記士	一回	李	英愛	(全南)		一回
金	宗弘	(平北)		夕	崔	吉龍	(平南)	國防部	夕
林	壽洪	(全北)		夕	李	振英	(慶北)	學生	夕
張	高昌	(京畿)	學生	夕	韓	相大	(慶北)	公務員	夕

黃圭 鎮 (慶南) 學生 一回 權在奎 (慶北) 學生 一回

洪斗 初 (慶北) 韓國銀行 崔英 恭 (京畿) 國會速記士

金承 男 (平南) 東洋通信 金鍾 燮 (慶南) 學生

改二 慶 (慶南) 學生 金 炯 益 (慶南)

鄭在 景 (慶南) 李 鴻 元 (江原) 出征中

金基 俊 (平北) 會社員 金 應 珪 (平北)

姜 燾 植 (咸南) 朴 守 烈 (慶南) 教員

金基 芳 (慶南) 交通部 許 寬 (咸南) 每日新聞記者

韓 美 玉 (京畿) 金 京 善 (黃海)

禹 英 愛 (京畿) 學生 李 相 憲 (仁道)

李 貞 淑 (忠南) 梨花大學 金 敏 禧 (慶北)

朴魯榮 (忠正)

一四 鄭順玉 (平南)

一四

金熙正 (平正) 學生

ク 車永真 (忠南) 交通部

ク

金春盛 (平正) 公報室

二四 黃貞媛 (京畿)

ク

李甲熙 (仁意) 大田市議會

ク 徐萬福 (黃海) 國會速記士

二四

趙寬淳 (黃海)

ク 金相振 (忠正) 雜誌社

ク

朴日承 (全南) 學生

ク 朴雲報 (咸南) 學生

ク

金相淳 (慶南) 國會速記士

ク 朴貴順 (仁意) 國會速記士

ク

劉珞詰 (全南)

ク 申西健 (慶正) 法務部

ク

姜成福 (京畿) 學生

ク 鄭秉淑 (京畿) 國會速記士

ク

金允洙 (全南) 國會速記士

ク 文仲敬 (慶南)

ク

尹壽鎰 (忠南) 國會速記士

ク 尹興淳 (忠南) 會社員

ク



# 編輯後記

~79~

三螢 編輯後記라고 붓을 감으니 두엇보다도 「三螢」 이 이름이었는데  
 들은 菅束이 生覺된다 意慮 몇날을 두고 研究한 文字 그대로 반듯볼  
 「三螢」의 「三」이란 三期生을 意味한 것이고 螢이란 사상은 없으리라 여  
 意味한 것이다. 여기에서 구려하여 說明을 強要할 사람은 없으리라 여  
 이틀이전 기어놓고 부리던히 불로는 가운데 情이 드는 法이다  
 校長先生을 비롯하여 여러 諸先輩들의 寄稿와 또한 앞으로도 우  
 리 들을 積極指導 踴躍하여 주실 諸先生들의 寄稿하여 주신 데 하  
 謝意를 表하며 아울러서 投稿하여 주신 諸學生同志들에게도 感謝하는  
 바이다

누구나 冊을 完刊하고서 소인할 때는 充實한 內容에 多彩로운 編輯  
 으로써 本來의 意圖에 滿足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編輯을 마치면 不足  
 感을 느껴보는 것이 事實이다. 아마 이 「三螢」도 그러했으리라. 그러나  
 거러나 우리 三回生으로서 이 번이 마지막이니 힘하고 歎할 處이  
 없는데도 그리 刊됐노라고 稱讚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編輯者의 素直  
 한 心情이다

이 말처럼 느려 놓으면 限이 없으려니 그만하고 끝으로 「三螢」 完刊  
 이 말처럼 陽으로 協助하여 주신 여러 분에게 感謝하는 바이다

編輯室 乙生

